

# 붕괴 위기 군산에 활력을!

## 나기학 도의원, 강소특구 지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군산 재생에너지·자동차 융복합 산업거점 구축 기대

자동차 및 조선업의 쇠퇴로 붕괴 위기에 처한 군산지역의 혁신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새만금 산업단지를 배후 공간으로 하는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촉구하는 건의안이 도의회에서 채택됐다.

전북도의회 나기학(군산)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촉구 건의안'은 산업 및 고용위기에 처한 군산지역의 경제회생과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새로운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특구 지정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해 도입된 강소특구는 새로운 연구개발특구 모델로서 대학, 연구소 등 거점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소

규모·고밀도 집약 공간을 R&D특구로 지정 육성하는 사업이다.

전북 등 기존 5개 연구개발특구가 미개발지 장기화 및 집적연계 효과 저하 등의 한계를 보완에 따라 기존의 단점을 보완하고 지역 신규 R&D 특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다.

나 의원은 "80년대 이후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정책에서 소외돼 온 전북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구 노력에도 낙후지역의 면모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고,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한 조선업과 자동차산업도 붕괴 직전에 돌렸다"며 전북 경제위기를 거론했다.

지난해 4월, 정부는 군산을 산업 및 고용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며 긴급조치에 나섰지만, 이미 잦던 지역으로 인한 산업기반을 회생시키기에 역

부족인 상황이다.

나 의원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군산에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지만, 기존 내연기관에서 새로운 전기차 생태계로 전환하려면 이에 걸맞은 지역 R&D 기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며 건의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나 의원은 "국내 전기차 산업이 수입산 부품 조립공장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강소특구 지정을 통한 독자적인 혁신생태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새만금 재생에너지 정책의 성공적인 결실을 위해서도 강소특구 지정이 시급하다는 내용도 건의안에 포함됐다.

올 하반기 강소특구 지정은 전북을 비롯해 7곳이 신청한 상태며, 내달부터 과기부 심사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고민형 기자



증인선서하는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 2019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15일 새만금개발청에서 김현숙 새만금개발청 청장이 국정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 가짜석유, 품질부적합 주유소 여전히 기승... 대기업 정유사 불법 행위 80% 이상

### 조배숙 의원, 품질부적합 주유소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강조

전국 주유소의 가짜석유, 품질부적합 등의 불법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가짜석유, 품질부적합,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제1항제8호 금지조항)하는 불법 행위 적발 건수가 2014년 339건, 2015년 397건, 2016년 494건, 2017년 524건, 2018년 584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알뜰주유소와 기타 상표가 없는 주유소를 제외한 SK, GS, 현대, S-Oil 등 4개 대기업 정유사의 불법행위가 전체 적발건수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SK주유소가 5년간 총 774건으로 가장 많은 적발건수를 기록했다.

한편, 가짜석유제품 적발 주유소는 2014년 204건, 2015년 167건, 2016년

192건, 2017년 172건, 2018년 138건으로 감소 추세이지만, 품질이 부적합한 주유소는 2014년 110건, 2015년 216건, 2016년 249건, 2017년 266건, 2018년 339건으로 5년 사이 2배 이상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품질부적합 주유소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배숙 의원은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주유소의 불법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한국석유관리원은 주유소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하며, 특히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품질부적합 주유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 도의회 행정자치위,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국주영)는 15일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해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현황을 청취한 뒤 14개 시·군에서 모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행정자치위원들과 시·군 센터장들은 이 자리에서 이국명에서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의 조

기 정착 방안과 센터 종사자의 처우 개선 등 다문화가족 지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현재 전북도에는 2017년 11월 현재, 결혼이민자 1만900명(남 735명, 여 1만 165명), 다문화가족 자녀 1만893명(남 5753명, 여 5240명)이 거주 중이다.

/고민형 기자

## 輿, 내주까지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녀의 입시 관련 의혹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불거진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와 관련한 법안을 늦어

도 다음주께 발의기로 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및 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의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법안이 거의 다 돼 있다.

법안 심사도 돼 있는 것 같다"며 "너무 늦지 않게 이번 주나 다음주 중으로 제출할 것 같다"고 밝혔다.

야당에서는 전수조사 대상에 고위공직자 자녀도 포함시키자는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국회의원 자녀로 한정시키기로 했다.

/뉴스시

## 전북도의회, 소식지 제68호 발간... 국외정책연수기·특위 활동 등 의정 소식 담아

전북도의회 간행물편집위원회(위원장 황영석·더불어민주당·김제1)가 발간하는 도의회 소식지 '전북도의회 2019가을호(제68호)'가 발간됐다.

제68호에는 상임위원회 국외정책연수기가 기획으로 다뤄졌다. 5곳의 상임위원회는 국외정책연수를 통해 접한 선진사례를 전북 실정에 맞게 정책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와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소식도 게재됐으며, 전북형 도시재생모형을

찾고 있는 의원연구단체 도시재생연구회 활동도 소개됐다.

지난 7월과 9월 열린 제365회 임시회와 제366회 임시회 회기중 이뤄진 조정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5분 발언과 제·개정안 조례, 채택된 건의·결의문도 자세하게 소개됐다.

도의회는 회기동안 전북도와 전북교육청 하반기 업무보고를 듣고,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했다.

황영석 간행물편집위원장은 "도민과 소통하기 위해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

다"며 "의정활동이 세세하게 소개된 만큼 도민들이 살펴보고,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적극 제안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점자책을 포함해 분기별로 4600부를 제작해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타 시도와 의회, 국회, 시각장애인도서관 등에 보내고 있다.

구독을 신청하는 도민들에게는 무료로 발송하고 있다. 구독신청은 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onbuk.kr>)로 하면 된다.

/고민형 기자

##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

### 송성환 도의장, 건강보험 남부지사 명예 지사장 위촉... 민원인 불편사항 청취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은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남부지사서서 일일 명예 지사장에 위촉돼 직원들의 현장 목소리와 주민 불편사항 등을 청취했다.



송성환 의장이 15일 건강보험공단 남부지사서서 일일 명예 지사장에 위촉됐다.

송 의장은 이날 지사 회의실에서 전국민 건강보장 30주년 홍보 동영상 시청과 주요 업무보고를 받은 뒤 1층 민원실에서 업무결재와 민원실을 방문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황휘연 지사장은 업무보고 전 인사말을 통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여론형성과 요양보호사 처우개선과 관련된 조례제정 필요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송 의장은 "일일 지사장 체험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 다양한 사업과 직원들의 업무 고충을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업무 특성상 민원 여지가 많아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도움을 주는 남부지사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복지제도 선진국과 비교하면 절대

뒤쳐지지 않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국민건강보험제도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는 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을 위해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민형 기자



###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